



초등 5·6

SFF환경동화 10



고수진 글
해마 그림

이지북
EZbook



1. 지구의 초록빛을 찾아서

★『은하수꽃』으로 즐기는 빙고 놀이!

- 『은하수꽃』과 관련 있는 단어를 떠오르는 대로 써 보세요.

※힌트: 등장인물, 장소, 주제, 상징, 감정 등

브레인스토밍(많은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쓰아 내기)

★ 브레인스토밍한 단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빈칸을 채워 보세요. 모두 채우면 친구들과 함께 빙고 놀이를 즐겨요.



★『은하수꽃』은 주인공 ‘아르’가 바리별섬으로 떠나는 모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번호를 써 보세요.



- ① 헐떡이는 숨을 참으며 보안 요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 ② 단발머리가 되돌아온 부메랑을 다시 잡더니 검은나비의 반대쪽 허벅지와 어깨를 차례로 맞혔다.
- ③ 해수의 짐작대로 시커먼 연기는 별마루의 어느 한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 ④ 아르는 숨을 고르고 난 뒤, 입구 가까이에서 검은 비가 온 숲을 적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 ⑤ 자신의 이름을 훌이라고 밝힌 로봇은 갑자기 삐걱대며 다가왔다. 아르는 요술봉을 바짝 치켜들었다.
- ⑥ 검은나비가 레이저 건을 들어 해수의 이마를 겨누었다. “당장 씨앗 내놔!”
- ⑦ “엄마, 엄마. 엄마……. 흐흑, 흐흐흑.”
- ⑧ 아르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해수를 놓칠세라 손에 더욱 힘을 주고 버텼다. 하지만 끝도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차츰 힘이 빠졌다.
- ⑨ 새는 바리별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풀밭 위에 아르를 내려놓고는 어딘가로 훌쩍 날아갔다.
- ⑩ 아르와 해수는 바위에 나란히 기대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정답 ① - ⑨ - ④ - ⑩ - ③ - ⑤ - ⑦ - ⑧ - ② - ⑥



- ★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르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도를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주요 등장인물

아르, 해수, 홀, 검은나비, 엄마, 할아버지, 해수 할머니

※자유롭게 새, 윤 소장, 보미 등 다른 인물을 추가해도 좋아요.

아르



★ 다음 대사는 누가 한 말일까요? 알맞은 인물을 찾아 선을 긋고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돌본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 주는 것입니다.”



아르

“웃기지 마! 바리별섬에 은하수꽃이 피면 사람들이 그 꽃을 사이좋게 나눠 가질 것 같아?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할머니의 어리석은 희망을 짓밟아 줄 거야.”



해수

“우리는 잘 해낼 거야.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 줄게.”



홀

“너도 특별하단다. 네가 가진 그 마음으로 특별한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검은나비

“안전? 이제 지구상에 그런 곳은 없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할아버지

★ 은하수꽃을 찾아 바리별섬으로 함께 떠나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아르



해수



홀



검은나비



2. 잿빛 숲이 되어 버린 지구

- ★ 독성 미세 먼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과 생명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나요? 공간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언더시티

별마루&지상

바리별섬

- ★ 미세 먼지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은 적이 있나요?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 만약 미세 먼지가 점점 심각해지면 우리 주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상해 보세요.



★ O/X 퀴즈로 알아보는 미세 먼지

1 미세 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정도이다.

0 | X

2 미세 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0 | X

3 미세 먼지는 코나 입을 통해 폐 속 깊이 들어간다.

0 | X

4 미세 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도 창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0 | X

5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0 | X

6 미세 먼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0 | X

OX 퀴즈 해설

1. X

미세 먼지의 지름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이고, 초미세 먼지는 $2.5\mu\text{m}$ 이하예요. 머리카락은 약 $50\sim70\mu\text{m}$ 로 미세 먼지보다 훨씬 두꺼워요.

4. O

미세 먼지는 창문의 미세한 창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한 집 안에서 요리, 난방, 청소 등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기하는 것이 좋아요. 환기하면 물걸레로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 먼지를 닦아 주어야 해요.

2. X

미세 먼지는 자연적인 원인(흙먼지, 화산재, 식물 꽃가루)과 인위적인 원인(화석 연료, 쓰레기 소각, 건설 현장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생기며, 인위적인 원인이 대부분이에요.

5. O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0.6\mu\text{m}$ 입자를 80%, KF94는 $0.4\mu\text{m}$ 입자를 94% 걸러 줍니다. 초미세 먼지에는 KF94가 더 효과적이에요.

3. O

미세 먼지는 매우 작아 숨을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6. O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줄면 배기가스가 줄어 미세 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요. 자전거, 도보,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3.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내는 꿈을

- ★ 아르의 할아버지와 해수의 할머니 그리고 아르의 엄마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하수꽃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애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간절히 바라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 ★ 이 이야기에서 은하수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하수꽃에 대한 설명을 읽고 미세 먼지와 은하수의 관계를 연결지어 추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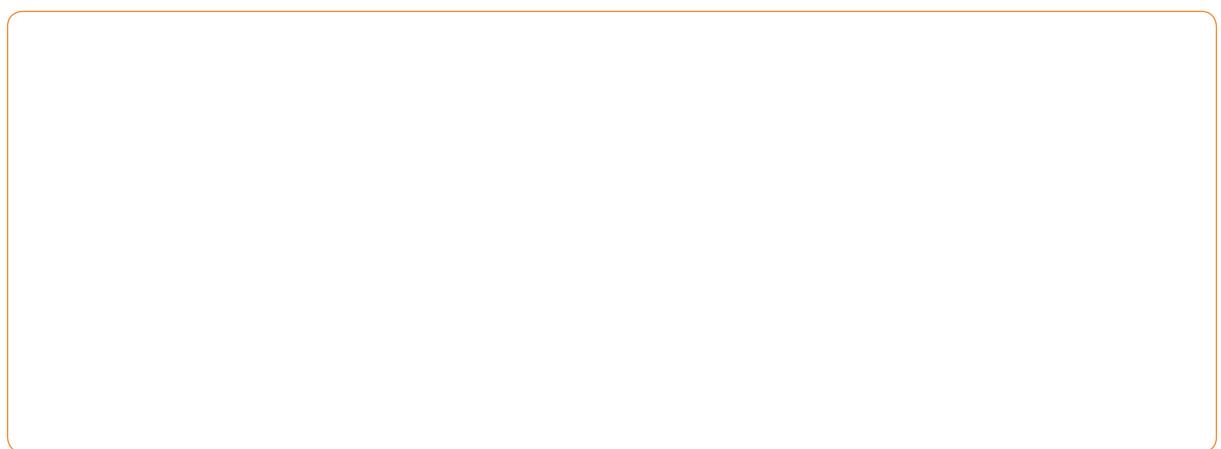
※추론이란 어떤 단서를 근거로 삼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이끌어 내는 거예요.

은하수꽃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뜨면 흰 꽃을 피운다는 신비로운 식물이었다.

하지만 독성 미세 먼지로 뒤덮인 지상에 은하수꽃이 남아 있을 리 없었다. (16쪽)



- ★ 미세 먼지를 줄여서 맑고 깨끗한 세상을 되찾을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상상해 보세요. 멋진 상상이 떠올랐으면 그림이나 글로 소개해 주세요.





4. 초록빛 시간을 되돌릴 유일한 희망, 은하수꽃

- ★ 검은 비를 피해 동굴에 숨어 있던 아르는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새싹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새싹이 무사히 살아 있는 모습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 순간 아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새싹은 아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게도 새싹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 ★ 아르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좌절에 빠졌어요. 더 이상 바리별섬으로 떠날 이유도 사라졌지요.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바리별섬으로 향합니다. 아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새로운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래 글을 읽으며 연관 지어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희망이 엄마에게 그리고 아르에게 이어지는 동안, 아르의 마음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156쪽)



- ★ 검은 나비는 희망을 믿지 않았어요. 검은 나비의 말처럼 할머니의 희망은 어리석은 걸까요? 엄마가 죽은 것도 헛된 희망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검은 나비의 말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바리별섬에 은하수꽃이 피면 사람들이 그 꽃을 사이좋게 나눠 가질 것 같아?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피 흘리며 싸울걸? 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왔거든. 쿨럭쿨럭.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할머니의 어리석은 희망을 짓밟아 줄 거야. 그리고 똑똑히 보여 줄 거야. 살인 면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방법은 없다는 걸.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걸! 너희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아무런 힘도 없는 희망이란 걸 믿었기 때문이야!” (127~128쪽)





5.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 ★ 바리별섬에 도착한 아르는 마침내 은하수꽃이 은하수의 빛을 받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아르의 마음속에 피어난 희망은 무엇일까요?

★ 나만의 희망 주문 만들기

- 내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은 무엇인가요?
- 나만의 희망 주문을 만들어 보세요.
- 주문에 담긴 뜻이나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친구들과 서로의 주문을 이야기하고 함께 외쳐 보아요!



너만의 주문을 만들어서 매일 외워 봐!
네가 바라는 희망이 정말 이루어질지도
몰라. 나도 같이 외칠게!

- ★ 내가 생각하는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스스로 희망을 정의해 보세요.

(예시) 희망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희망이란

(예문)



6. 단단한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 사람들이 은하수꽃을 남김없이 캐는 바람에 바리별섬에 피던 은하수꽃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적인 태도로 살펴보세요.

※비판은 비난과 달라요. 비난은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거지만,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해수: 바리별섬에 가면 정말 은하수꽃이 있는 거지?

아르: 응.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사람들이 남김없이 캐는 바람에 바리별섬에서 자라던 은하수꽃은 모두 사라졌지만, 할아버지가 숨겨 둔 마지막 한 송이가 섬 어딘가에 피어 있을 거라고 말이야. (49쪽)

★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골라 동그라미 해 보세요. 떠오르는 다른 마음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도 좋아요!

배려 관심 경쟁 희생 외면 양보 괴롭힘 책임감 욕심 도망 공동체

의식 정의감 보살핌 무관심 나눔 협동 무례 다정 공감 불친절 무책임 공익

★ 인물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서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없다면 빈칸으로 남겨 두세요.

인물	이타적인 행동	이기적인 행동
아르		
해수		
흘		
검은나비		
할머니		
엄마		



7. 우리 함께 가자, 바리별섬으로.

★ 아래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새끼 새는 얼마나 오래 간혀 있었는지 눈도 뜨지 못하고 부리만 간신히 달싹였다.

“목말라? 물 줄까?”

아르가 수분 젤리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해수와 나누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다. 하지만 숨이 꺼질 듯한 새끼 새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르는 망설임 끝에 수분 젤리를 반으로 쪼개 새끼 새 입안에 넣어 주었다.

새끼 새는 힘겹게 물을 삼켰지만 반쯤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다시 한 조각 더 넣어 주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중략) 아르는 남겨 둔 마지막 수분 젤리까지 꺼내 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다시는 아프면 안 돼.” (67~68쪽)

만약 내가 아르라면 새에게 수분 젤리를 양보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머니를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꽃을 찾아다니기보다 지금 눈앞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당장 씨앗을 심길 바랐거든. 꽃이 피지 않아도 뿌리만 내리면 그것을 달여 해독제로 쓸 수 있으니까. 재희 언니도 그랬어. 아저씨가 더스트 중후군에 걸리자 언니는 할머니에게 울면서 빌었어. 아빠를 살리려면 씨앗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끝내 씨앗을 심지 않으셨어. 결국 재희 언니는 아저씨가 돌아가시자마자 별마루를 뛰쳐나갔어. 그 후 제 발로 몬스터를 찾아가 약탈자가 되었고, 복수라도 하듯 별마루 사람들 을 악착같이 괴롭히고 있어.” (48~49쪽)

만약 내가 할머니라면 재희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엄마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여기까지 오는 길에 검은 비를 맞았거든. 비를 피하려고 가까운 건물로 뛰어가는데,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그 위험한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어. 그 아이를 달래서 데려가느라 애 좀 먹었단다. 낯선 사람을 향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절망이 눈에 가득해서, 쉽게 나를 따라오지 않더구나.

그 아이와 실랑이하느라 비를 많이 맞긴 했지만…… 쿨럭쿨럭. 후회하지는 않아. 새까만 두려움 속에서 멀고 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네가 떠올랐거든. 우리 아르도 이렇게 혼자 멀고 있겠구나 싶어서 그 아이를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 (111~112쪽)

만약 내가 엄마라면 처음 본 아이를 모른 척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행동은 언제나 옳은 걸까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행동은 항상 나쁜 걸까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
.....
.....

- ★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
.....
.....



8. 와라! 열리는 글 세상

이윽고 은하수꽃이 살짝 떨리더니 물방울 같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아르는 순간적으로 숨이 몇은 듯했다.
새하얀 꽃잎이 서서히 펼쳐지며 신비로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은하수꽃이 피었어!”
아르는 떨리는 손끝으로 꽃잎을 어루만졌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포근하지만 강렬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르는 제 손으로 심은 씨앗도 흙을 뚫고 올라와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될 순간을 마음에 그려 보았다.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아르는 온 마음으로 느꼈다

(161쪽)

★ “작은 꽃 한 송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르가 발견한 은하수꽃처럼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해 보세요.